

만남

03 2023
통권 589호

창간 50주년 특집호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만남』 창간 50주년 김운성

특집 | 만남 50년

04 반세기 영락의 역사 '오롯이'

06 기도가 가장 귀한 단어

특집 인터뷰

08 2023 영락의 희망을 묻다(2·끝)

04



교회표어

말씀따라 행진하라
(만수기 9:23)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20

다음세대

12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양동욱

14 이마에 기름을 발라주실 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한규진

16 너의 필요를 기억하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박효빈

18 성경 필사하며 사뿐사뿐 걸어요 교육부

땅끝까지 이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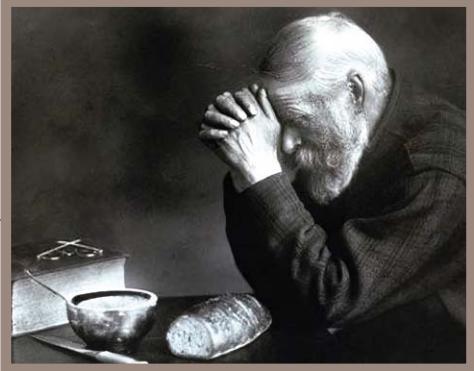
20 3년 만의 해외의료선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했습니다 박도준

24 첫사랑으로의 선회, 우리가 살아갈 토대 이윤범

26 더운 날씨 속 강행군
우리의 열악함도 사용하십니다 노원일

만남

2023년 3월호 통권 589호
창간 50주년 특집호



교회소식

영락의 울타리

- 28 항상 함께하시는 일상의 은혜 김하현
30 신임목사 4인 방덕종·황재영·정준희·이종실
34 3040세대 변화 '도구' 아닌 주체적 참여 원해
38 성경은 물의 역사다 김재원

아곱의 우물가

- 40 새벽 기도를 이어간다
믿음의 대를 잇는다 김영미

문화광장

- 42 알사탕 오병훈
43 복 있는 사람 고윤숙

표지설명

1973년 6페이지로 단출하게 출발한 「만남」이 50주년을 맞아 60페이지 안팎의 컬러 월간지로 성장하였다. 디지털 시대 웹진으로도 발간한다. 위임목사 부터 교역자, 제작은 물론 청장년, 청소년, 아동부 어린 성도까지 누구나 참여하는 소통공간을 자임하는 「만남」은 신앙의 성장과 교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다양하고 깊이있는 콘텐츠로 풍성함을 더해 가고자 한다.

3월 목회력

- | | |
|----|--------------------------------------------------|
| 01 | 수 • 삼일절기념 수요1부기도회 |
| 03 | 금 • 연합 및 금요권찰모임 |
| 04 | 토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 05 | 주일 •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세례·입교식, 찬양예배 성찬 |
| 12 | 주일 •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제직회 |
| 19 | 주일 •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소그룹의 날 |
| 26 | 주일 •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사회봉사주일, 다음세대기도회,
새가족환영회 |

만남 창간 50주년!

- 만남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김운성 위임목사



영락교회 홈페이지에서 교회 연혁을 찾아보았습니다. 1973년 부분을 보니『만남』에 관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2월 15일 평신도부가 월간「만남」을 창간하다> 이처럼『만남』은 지난 2월에 창간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영락교회 홈페이지는『만남』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남』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며, 교회의 목회 소식을 전하기 위해 1973년 2월 15일 창간되어 영락교회 홍보출판부가 발행하고 있는 영락교회의 유일한 월간지입니다. 영락교회에는『만남』지가 창간되기 이전에도 기관지로 발행하는 간행물이 있었습니다. 1961년 당시 교회 장년면려회가 발행한『면려』지가 그것입니다.『면려』지는 1964년 37호까지 발행 후『영락』이라는 이름으로 제호를 바꿔 발행하다가 1966년 3월에는『영락월보』로 재창간되었고, 1969년에는 제호를 다시『영락』지로 환원하여 1974년까지 발행해 왔으나, 전 해인 1973년 2월 창간되어 발간되고 있던 또 하나의 월간지인『만남』지를 당회가 기관지로 인가 결의함에 따라 자동 폐간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같은 문서선교의 역사를 거쳐 창간된『만남』지의 첫 1년은 11 절 변형 3단 조판으로 편집된 포켓용 양면 쪽지 형태였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귀중한 목회 정보 자료로서의 역할을 발휘하여 청년세대의 관심을 유도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략) 2014년 5월 교회 IT미디어부가 전자 편집까지 완료함에 따라『만남』지의 과월호들도 본 홈페이지 상에서 쉽게 찾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남』지가 찾아 읽는 모든 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조:『만남』 2013년 3월호(통권 469호) 40주년 특집호 24쪽)

〈만남〉이란 이름이 마음에 듭니다. 만남은 기독교 신앙을 응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요, 우리 서로의 만남입니다. 본래 사람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다시 만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 사건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서로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에 힘쳤는데, 그게 곧 만남이었습니다. 또 이방인과 유대인은 높은 담장을 쌓고 갈등했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앤디옥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 사이에 사랑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만남은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흔히 만남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무리 만나도 상대방에게 선한 자극을 주지 못하는 만남입니다. 그저 의미 없이 함께 있다가 헤어지는 만남입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지워지지 않는 선한 자극을 주고, 변화를 유도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특히 엔카운터(Encounter)라 합니다. 고용수 교수는 교회의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만나게 하는 만남의 교육이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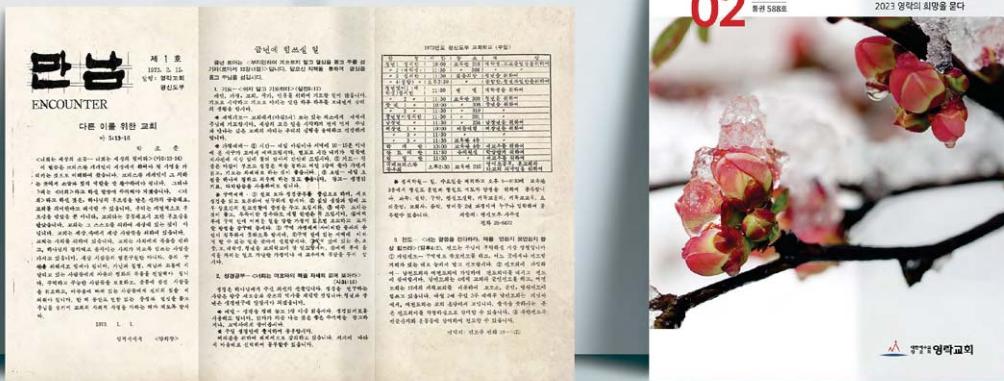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뀌었습니다. 병자가 건강한 사람이 되었고, 죄인이 의인 되었으며, 무의미하게 살던 사람이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님 안에서의 만남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만남은 복음의 핵심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영락교회는 성도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베다니 광장은 영락교회 성도들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부스가 설치되고,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만남』은 성도들이 글을 통하여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교회 소식과 정보들과 성도의 신앙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가 많아서 개인 차원의 만남이 제한되어 있지만,『만남』을 통해 잘 모르는 이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만남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님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된 날짜가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아쉽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된〈대면예배〉를 회복하여 얼굴을 대하고 만나길 원합니다. 아울러『만남』을 통해 활발하게 만나길 원합니다.『만남』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 안에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만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만남**

반세기 영락의 역사 ‘오롯이’



『만남』 1호 초기(주보) 형식

영락교회가 설립되던 해, 김성보 은퇴안수집사(홍보 출판부 자문위원)는 네 살 아기였다. 그런 그가 자라 영락교회 성도들의 소통 자리 『만남』에 평생을 헌신했다. 올해로 창간 50년을 맞은 『만남』과 함께한 것은 청년 시절부터 김 집사는 한경직 목사가 “교회 역사를 기록하라”고 권면한 것을 평생 마음에 두고 우

리 교회의 오랜 사료를 모아 기증했고 교회 곳곳에 얹힌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했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2020년 5월부터 웹진으로도 발간되고 있는 『만남』 50년을 맞아 김 집사에게 『만남』에 얹힌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뷰 만남과 평생 함께한 김성보 은퇴안수집사

많은 필자들을 만날 수 있었지요?

『만남』에는 14,440의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숫자냐고요? 바로 지난 50년간 접계된 필자의 수(數)입니다. 눈에 띠는 필자도 많습니다. 1980~90년 철학자 트로이카로 손꼽히던 김형석 교수(연세대) 故 안병욱 교수(숭실대)가 『만남』 필자였습니다. 명 칼럼니스트로 꼽히던 故 김동길 교수(연세대)도 필자로 인기였습니다. 그 외에도 칼뱅연구자인 한

철하 목사(아세아연합신학교 교수), 박종구 목사(월간 목회 편집장), 주선애 교수(장신대), 이광순 교수(장신대), 박창환 목사(13대 장신대 학장)도 필자 명단에서 눈에 뛵니다. 지금은 은퇴한 이재철 목사(전 주님의교회 담임)도 우리 교회 전도사로 사역할 때 『만남』에 글을 썼지요.

『만남』은 개별 교회에서 내기 어려운 월간 잡지로, 신앙과



사료를 기증한 김성보 은퇴안수집사(오른쪽)

기독교 교양의 탄탄한 기반이 되는 글을 실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성경 통신란〉과 〈성서 강좌〉 등을 연재해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길잡이 역할을 했지요. 신앙생활지도를 위한 ‘예배 규범’ ‘결혼에 관한 규례’ ‘장례에 관한 규례’ 등 새롭게 만든 규범을 알리고 자리잡도록 했어요.

지금도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고정란은 무엇인가요?

〈야곱의 우물가〉입니다. 1982년 2월호 98호에서 윤두혁 목사님이 첫 필자였지요. 야곱의 우물가는 목마른 여인에게 가장 갈급한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곳, 즉 생명의 삶이라는 의미로 지었어요. 당시 교회 소식이나 교역자들의 어렵고 딱딱한 글들이 많았는데, 부드럽고 재미있는 칼럼과 수필을 실는 〈야곱의 우물가〉는 상당히 파격적이었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성도들의 간증문도 참 호응이 컷어요.

제일 많이 읽히고 감동을 주는 게 간증문이죠. 1982년 6월호에 실린 〈영락에서 깨진 목탁〉은 승복 차림으로 수요예배에 참석해 거듭난 분간증으로 정말 대단했어요. **만남**

취재 인 미 기자

<창간 1호 중에서>

- 성도의 교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인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 사랑, 진실, 화목, 소망으로 거룩한 교제를 가져야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47절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에게 바람직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산업 기술 문명사회 속에서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없는 곳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비인간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더욱 성도의 교제가 이뤄지도록 유의합시다.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사업을 중심하여 친교를 넓힙시다. 예배 후 서로 인사를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나눕시다. 교인 간에 서로 위로하고 존경하며 돋는 생활을 힘씁시다. 추미나 뜻이 맞는 분끼리 그룹을 지어 솔선하여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며, 나의 주장을 하기보다 남의 주장에 귀를 기울입시다. 성도의 교제를 해치는 일을 삼갑시다. 남의 사생활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자신을 잘 돌봅시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힘쓰고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하며,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맙시다. 사람 앞에서 존경하고, 그 사람이 없을 때 칭찬하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줍시다. 헐뜯는 말, 수근거림, 분노, 거짓을 버리고 친절, 진실을 지닙시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믿으며 격려하는 생활을 합시다. 사이비 종파, 이단, 적그리스도를 삼가고, 침투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증인, 전도관, 통일교회, 몰몬교회, 암식교, 동방교, 세계일가공회, 새일수도원, 창가학회, 천리교 등 무수한 그릇된 집단이 온갖 수단을 다하여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디도서 3:10)고 하였습니다. 기도원, 부흥회 등에 갈 때는 교역자나 담당 구역장의 지도를 받읍시다. 온 교회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힘쓰고 기쁨의 생활을 가집시다.

- 『만남』(ENCOUNTER)을 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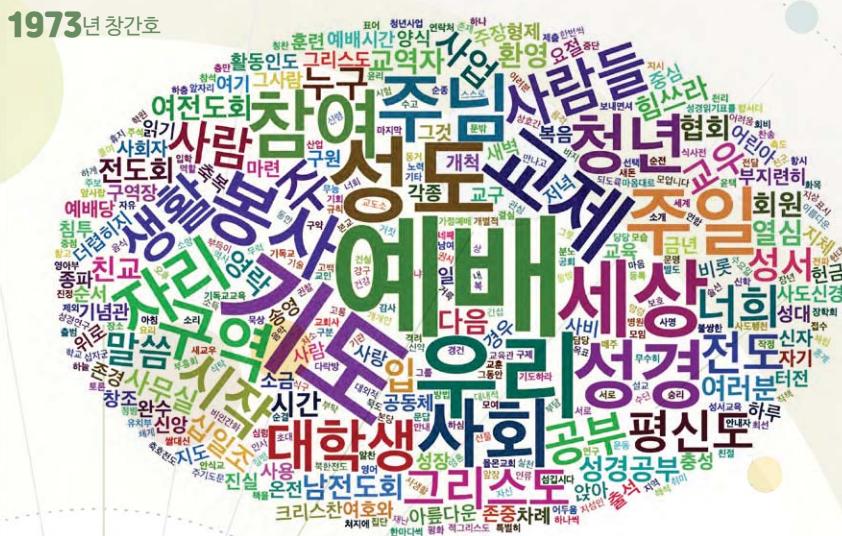
영락의 1만6천의 가족, 238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교구로 구분되어 있어라. 이에 교구 담당으로 수고하시는 교역자님을 비롯, 구역장, 권찰, 권사님들의 수고로 맺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 하나님과 만나고, 서로와 만나고, 온 교회는 세상, 사회와 만나서 사랑의 완수를!

기도가 가장 귀한 단어

편집부

1973년 2월 15일 제1호 『만남』이 발간된 후 5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그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지요. 1973년 3,410만 명이던 대한민국 인구는 50년 만에 5,000만 명이 되었습니다. 1973년의 1인당 연간 국민총소득은 43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3만4,980달러로 81배가 되었지요. 1973년 인구성장률 2.1%로 인구폭발을 염려하고 산아제한 정책을 펴던 것이 이제는 세계 최저 출산율에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보여주는 ‘초고령’ 국가의 문턱에 섰습니다. 이런 사회적 급변 가운데, 교회도 1970년대의 폭발적 성장을 지나 이제 상당한 어려움을 드러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요? 급속한 세속화와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우리『만남』의 관심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변화의 한 모습을 보기 위해『만남』창간호(1973년 제1호 6개면)와 최근호(2023년 제588호 56개면)에 실린 글을 빅데이터 분석하여 워드클라우드(Word Cloud) 방법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지를 통해 우리의 관심사를 일별하는 방법입니다. 중앙 부분에 글꼴이 큰 단어가 배치되어 있는데, 글자가 클수록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선교·훈련·소그룹 빈도 갖고 1973년엔 예배·성도·교제·봉사 빈번

교회와 하나님 두 단어 다음으로, 1973년의 최빈 단어는 예배입니다¹. 두 번째로 많은 단어가 기도, 성도, 우리, 세상, 교제, 주일, 사회, 봉사, 참여, 청년 등입니다. 이에 비해 2023년의 최빈 단어는 기도, 선교이며 다음으로 사람, 교육, 훈련, 우리, 사역, 청년, 전도, 생각 등이 차지합니다. 50년의 시차를 두고 변치 않는 것은 ‘기도’가 가장 많은 단어 중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우리, 성도, 청년도 변함없이 중요한 단어로 나타나는군요. 하지만 차이도 보입니다. 1973년의 주일, 사회, 봉사, 참여가 2023년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대신 선교, 교육, 훈련, 사역, 생각 같은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봉사, 교제, 참여, 구역, 세상이라는 단어는 사용이 감소했고, 선교, 전도, 교육, 훈련, 소그룹, 공동체, 사람 단어의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언어 습관의 차이인지, 샘플(발행호)의 차이인지, 지금 우리 교회가 당면한 관심사의 변화인지 더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만남**



1 실제로 1973년 제1호와 2023년 제588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교회와 하나님 두 단어였습니다. 이 두 단어가 월등히 많아 그림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난달 『만남』에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인 교육-선교-목양을 담당하는 장로 인터뷰를 실은데 이어 이번 달에는 우리 교회의 큰 살림을 맡은 행·재정관리분과위원장과 당회 운영을 맡은 당회 서기 장로 인터뷰를 실습니다.

행·재정은 교회 실핏줄 가장 소외된 곳까지 피 돌아야



“

택배 널려있는 봉사관 앞
반출시설 설치 방안 찾는 중
성도님들과 소통 통로로
『만남』역할 기대 커

”

행·재정분과위원회 차재능 장로

교인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다른 부서들에 비해 행·재정관리분과 위원회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재정부에는 어느 부서가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요.

행·재정관리분과위원회에는 교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처와 만남지, 교회 달력, 요람을 발간하는 홍보출판부, 최근에 부쩍 업무가 많아진 IT미디어부와 재정부, 서무부, 시설관리부, 자원봉사부, 예산위원회, 감사위원회, 기도원 등 모두 10개 부서가 속해 있습니다. 10개 부서마다 장로가 부서장을 맡고 있으며, 저는 행·재정관리분과위원장이면서 서무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물이나 사무 관리 측면에서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교회 재정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충성되고 지혜롭게 역할을 다하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통합구매 등 가능한 방법들이 이미 나와 있으니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회 봉사인력의 도움으로 재정 절감, 교회장비의 공용화로 재정 효율화 도모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행·재정분과위원회의 업무는 성도들의 교회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자칫 잘못하면 불평과 불만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현재 고민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선,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보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관 옆 공원의 바닥과 나무 벤치 그리고 50주년기념관 외부의 철계단 등 안전을 위한 시설보강이 필요하지요. 또한 성도님들께서 종종 문제제기를 하는 봉사관 행정처 앞 택배 문제입니다. 행정처와 협력해서 반출 시설을 갖추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주년기념관 지하 5층에 폐기물을 쌓아놓은 주차면과 관련입니다. 각 부서에서 폐기물을 내놓는 것도 문제지만, 성도들이 집에서 쓰지않는 물건을 갖다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무부 승인을 받아 라벨을 붙인 것만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실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도님들과 소통의 통로로 『만남』의 역할도 기대하겠습니다.

행정 업무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 꼼꼼하고 정확하게 수행 하셔야 하는데, 이 때문에 ‘수직 행정’으로 위계적인 성격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수평 행정’을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행·재정관리분과에 속한 부서의 공통점은 교회의 모든 부서와 연결되어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마치 몸의 실핏줄같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는 것들을 결정하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으니, 전체적 관점에서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요. 한경직 목사님의 원칙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만장일치로 협의하여 의견을 처리하는데 가장 큰 가치로 두셨지요. 저도 수직적 행정에서 탈피하려고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평범함 속에서 서로의 뜻을 존중하며 가장 좋은 방안을 추진하는 기본을 지키고자 합니다. 부서장인 장로가 다른

부서와 접점을 정책적으로 조율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면 부서 차장들과 집사님들이 자율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려움이 큰가요?

부서장 임기가 2년이다 보니,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면 임기가 끝납니다. 후임자의 뜻이 전임자와 다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행·재정분과위원회 10개 부서 장로들이 부서원들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잘 협의해서 한목소리로 당회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부장으로 섬기시는 서무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요.

서무부는 행정처 업무를 지원·관리·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재물관리, 비품 대여관리, 시설관리, 재정회계 관리, 교역자 친교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재물관리팀은 교회소유의 각종 재물의 등록, 확인, 보존, 폐기, 불용처리 및 관리, 구매한 비품 및 장비의 등록업무와 재물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관리팀은 교회 내 시설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처의 시설관리팀과 협약하여 미비한 부분, 사각지대 관리 등 개선과 보완을 요청하며, 특히 50주년기념관 지하 5층 폐기물처리장을 조사하며 보관 관리합니다. 구매팀은 교회 내 제작부서 및 부속기관의 비품 및 장비 구매내역서를 기록하며 구매에 관련된 통제 생성 및 보고를 할 뿐 아니라, 행정처와 통합구매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재정관리분과위원회 올해의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행·재정은 ‘몸의 실핏줄’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곳까지 피가 통하게 하겠습니다.

청년·교회창립 80주년 준비 목회자 사역 ‘그림자 조력’



“
만남 카페 다시 오픈하고
키즈 카페, 체육 공간도 계획 중
회의 중 안건 도출하는 훈련
소수의견 경청 꼭 이뤄지길…
”

당회서기 박일환 장로

당회는 위임목사와 부목사, 시무장로로 구성된 교회 내 조직으로, 교회 전반에 걸친 지도감독과 치리를 담당한다. 당회서기 박일환 장로는 “아말렉파의 전쟁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던 것처럼 영적 리더인 위임목사의 보이지 않는 조력자”라고 당회원의 역할을 정의했다. 박일환 장로는 특별히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계획과 준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교회 전체 차원에서 2023년 비전과 계획을 말씀주세요.

교회의 비전과 실천 계획은 위임목사와 장로들의 협력으로 당회에서 세워집니다. 이 비전과 계획에 따라 각 제직부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하게 되지요. 올해 위임목사께서 특별히 강조하는 두 가지 사역은 이렇습니다. 첫째, 교회의 하리인 젊은이, 특별히 3040 세대가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일 년 동안 각 부서는 여러 가지 조사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이미 편성하여 실행하게 되는 계획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문 닫았던 50주년 기념관 ‘만남 카페’를 다시 오픈하고, ‘키즈 카페’와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 공간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실행입니다. 당회의 모든 장로님들과 제직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할 것입니다.

교회창립 80주년과 관련한 내용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은 12개 분과로 나누어 계획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시화시킬 것인가가 문제라서, 계속 기도하며 논의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단번에 이를 수는 없고, 앞으로 3~4년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창립 80주년을 맞는 2025년 시점을 축제처럼 감사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안)은 이미 만남지를 통해 성도님들에게 공개되어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하여 독특하게 강조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성도와 이웃, 장애인,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에 관심을 갖는 교회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자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락교회에 주신 많은 복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행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산지역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재정에 공감을 얻으면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경직 목사님 기록물의 보존·복원, 교회 역사관 내지 e-역사관 건립 등과 같이 지금까지 영락교회가 걸어왔던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연결하는 역사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정책을 세우고 소통함에 있어서 성도는 멀리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교회는 민주적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안건은 당회에서 결정하여 제직회를 거쳐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의회와 같은 의사절차가 있지요. 그러나 공동의회나 제직회는 구성원의 수가 많고 시간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영락교회는 등록교인의 절반이 시무제직이며, 이중 700여 명이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제직부서의 실행위원회는 새로운 의견을 제안하고 토론하기에 아주 좋은 장입니다. 그러므로 실행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곳이 안되도록, 소통하는 방법을 지금과 다르게 개선해야 합니다. 전문성을 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아주고, 실천하여 힘을 실어주고, 설득력을 갖도록 영적 분별력을 더해주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안건이 부서장을 통해 당회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만남』, 홈페이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성도들에게 전달될 때 소통은 원활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회의 중 안건을 만들어내는 훈련 그리고 소수의 의견이라도 흘려보내지 않고 귀 기울이는 문화, 이 두 가지를 꼭 이루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성도들께 부탁하고 싶은 기도제목은?

당회는 독특하게 구성되고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와 같이 보이지 않게 겸손함을 갖고 섬기는 당회서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당회의 의사결정 원칙은 만장일치입니다. 교회의 정책을 결정할 때 일체감으로 한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당회가 성도님들의 신뢰를 얻고, 교회가 평온한 가운데 본래의 사명과 복음 전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당회서기로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만남**

취재 이재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영락교회 교사교육부는 신앙의 대가 이어지도록,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할 분들을 교사로 양육하고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교육부에서는 다음세대와 함께 말씀 따라 행진하는 사역에 동참하실 70기 신입교사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사교육부에서는 믿음의 다음세대를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선생님들을 길러내는 신입교사 양성교육과 기존 교사들의 신앙훈련을 위한 계속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도 신입교사 69기에서는 신청자 67명 중 57명의 선생님이 수료하고 각 교육부서로 파송 받아 다음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교사들을 위한 계

속교육에서는 섬기고 있는 각 부서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구성하여 제공했고, 79명 선생님이 수료하셨습니다.

영락교회의 신앙의 대가 지속적으로 다음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 누군가는 홀로 있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주고 인격적 관계로 다가가야 합니다.
- 누군가는 한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 연결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 누군가는 혼자 학습하는 아이에게 삶의 신앙의 경험과 만남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 누군가는 아이들의 신앙과 삶의 뿌리가 더 풍성해지도록 세워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유아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이들이 선행학습과 학업이 우선시되고 신앙은 마지막 후순위로 밀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전도 종족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모르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친구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의 대가 약해지고 끊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품어야 합니다.

다음세대와 함께 말씀 따라
행진하는 교사교육부(민9:23)

우리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일정 : 2023.4.2 ~ 11.12

(총20강 및 현장탐방)

시간 : 주일 오전 9:00 ~ 11:15

장소 : 선교관 B2층(엘피스홀)

접수

2023.3.5. ~ 3.26
베다니 광장 부스
온라인 접수 (우측 QR코드)



문의

교역자 양동욱 전도사 010.2047.4624
부 감 김관용 안수집사 010.5415.8435
부 감 이민하 안수집사 010.3723.8766
서 기 황현숙 집사 010.8560.3016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 교사교육부

혹시 자신이 부족하다 여겨져 망설여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해변 가에서 예수님이 “네 가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받습니다. 이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보살피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불들 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며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

로 어린 양들을 먹이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52) **만날**



양동욱 전도사
교사교육부
교회교육원



이마에 기름을 발라주실 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고대하던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목요일 밤 서울 오는 기차 안에서도, 버스 타고 교회로 올 때도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영락교회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까지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중등부실에 들어서서 모두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정겨운 모습을 바라보니 뭔가 벽차오르고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타고 산을 오르다 보니 기도원이 보이고 미리 와 계셨던 분들이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끝~내주는 기도원 밥을 먹고 본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 받고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날 여는 예배에서는 간단하게 이번 주제인 ‘보이지 않는 싸움’에 대해서 들었는데, ‘내가 이러한 싸움에서 누구의 편에 섰나?’, ‘내가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이런 싸움에서 승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는 예배 이후 했던 ‘뭉쳐야 땀다’라는 프로그램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답하면 달란트를 받고, 서로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고, 깃발을 만들고, 앞에 나와서 춤도 추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벌써 익숙해져서 친구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저녁집회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로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는 말씀이었는데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과거 이야기에 빗대어 말씀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본인이 형에 비하면 공부도 못하고 모범적이지 않았던 학생이었는데도 목사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보잘 것 없고 외모도 출중하지 않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 같이, 또 형보다 잘난 것이 없었던 본인이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한명 한명을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나에게는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말씀 이후, 기도 시간에는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때 있을 많은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께서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셨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직까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제발 만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저의 어깨에 손을 올려서 기도해주실 때 감사했고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날 아침묵상으로 경건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에 ‘조는 훌륭하다’ 활동을 하며 돌



아다니니 친구들과 더욱 돋독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에 성교육 시간이 인상 깊었습니다. 성경적 성교육을 받았던 것은 처음이었고 이번 성교육을 계기로 성에 대한 관념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집회 때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였는데 우리 인생에서의 골리앗, 즉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할 때 하나님을 방패 삼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진정 하나님만 의지했는가?’라는 의문이 들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소리 내어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기도할 때와는 달리 통성기도를 하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제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회개했습니다. 눈물이 조금 진정되려던 때 모두 나와서 1,2,3학년,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유를 모르는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1학년들에게는 ‘중학교 시작인데 3년 동안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2학년들에게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어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3학년들에게는 ‘고등학교가 얼마 남지 않은 친구들의 미래를 주관해주세요’, 선생님, 교역자분들께는 ‘저희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앞으로 이처럼 자라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정말 몸에 물이 없어서 더는 눈물이 안 나올 정도

로 울었습니다. 이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닿았구나 싶었습니다. 기도 후 신나게 찬양할 때 첫날보다도 훨씬 더 기쁘고 더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이종실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을 때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폐회예배를 마치고 전도사님께서 이마에 기름으로 십자가를 그어주시고 기도해주시며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라고 하실 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군대로서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2박 3일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너무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누린 그 어떤 때보다 귀중한 시간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수많은 보이지 않는 싸움들 딱 기다려! 하나님 최고! 수련회 가길 잘했다 한규진!! **만남**



한규진
중등부 3학년

너의 필요를
기억하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영락교회에 정착 후, 처음 맞는 겨울수련회에서 조장을 맡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영락교회에 출석한 지 햇 수로 3년째이지만, 코로나가 시작될 때 오게 되어 이제 막 적응을 해가는 중이었기에 고민이 많았다. 그렇지만 내가 많이 사랑받은 이 공동체에서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또 ‘너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순종해보자’라던 친구의 이야기에 사실은 조금 충동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걱정으로 가득한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과 그때 불쑥 끼어드는 내가 드러나려는 마음, 또 그 연약함으로 내가 감히 은혜만 가득해야 할 자리에서 그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무너지기도 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다. 내가 앞장서는 자리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씀은 내가 조장의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힘써야하는지 생각하게 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내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길 바랐다.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길,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했다.

교회 안에서 이끌어가는 자리가 낯선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동네 중형교회에 다니던 청소년 시절에는 학생회자리, 조장자리, 리더자리는 논의할 필요도 없이 나의 자리가 준비되어있었고 그걸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또 청소년을 만나는 외부 사역을 하면서 모임을 이끌어가는 일은 사실 1년 내내 내가 해왔던 일이었다. 하지만 교회에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막 적응하던 시기에 맡게 된 자리기도 했고 나보다 언니 오빠들이 많은 대학부 특성상 외부사역과는 다른 부담감이 있었다.

조원 명단을 받자마자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가 조배정이 된 것을 보고 참 많이 감사했다. 대학부 안에서 유일하게 친한 친구였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며 내가 많이 의지하는 친구였다. 또 조원들과 카톡방에서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조금의 기대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만나본 사람들은 걱정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최고였다.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감동만 가득한 사람들이었다.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할 정도로 나에게 정말 많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주었다. 함께하는 시간 내내 서로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자했다.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공동체가 된 것 같았다.



‘당신이 맡기신 일에 나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을 때 당신이 보이시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기도의 자리에 설 때, 나는 몇 달 전 기도회에서 가졌던 마음을 떠올렸다. 그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이번 기도회에서 역시, 나를 기도하게 하신 그 마음을 기억했다. 그래서 첫째 날 밤은 그렇게 그때의 기도제목을 놓고 엎드렸다. 내가 무너지길, 내가 죽고 당신이 사시길, 그렇게 나의 삶이 당신이 그리시는 역사가 되길. 그러나 주신 마음은 내 기대와는 달랐다. 나에게 중보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내가 너의 필요를 알고 채울 테니 너는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말씀하셨다

둘째 날 밤 기도회에서 내 마음에 남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내가 나의 문제와 걱정에 묻혀있을 때, 외면했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기도회 마지막, 서로를 위해 기도해준 시간에 내 뒤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손길들을 느꼈다.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관계를 꿈꿔왔던 나였기에 그 손길만으로 눈물이 났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자리가 낯설었지만 그만큼 행복하고 감사한 기억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의 필요를 채우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또 감사함에 눈물이 났다.

나의 염려를 기대로 바꾸시고 은혜 되게 하시고 당신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내게 남는 것이 감사뿐입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우시고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시니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나이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니 내가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안남**



박효빈 성도
대학부 49기
모세마을

“성경 필사하며 **사**뿐**사**뿐 걸어요”

〈사순절 예수님뿐, 사순절 말씀뿐〉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순절(Lent)은 다가올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주후 3세기 초까지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2~3일만 지켰으나, 주후 325년부터 40일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마태복음 3:13~17)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공생애를 준비하신 기간(마가복음 1:12~13)을 본딴 것입니다.

부활절로부터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수요일이 되는데, 이날을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灰)의 수요일(Ash Wednesday)’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회개와 슬픔을 나타내는 표시로 재를 몸에 바르는데서 유래했습니다. 올해 재의 수요일은 2월 22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은 다가올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초대 교회의 사순절은 엄격하게 하루 한 끼 저녁만 허락되었으나, 13세기부터는 간단한 식사를 허용하였습니다. 현대에 와서 사순절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할 뿐 아니라 때로는 무언가를 절제하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를 통해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경건 훈련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참고: 종교대백과사전, 두산백과사전 등)



올해 교육부는 사순절 동안 부활을 기다리며 신앙을 성찰하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해 각 부서별로 사순절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Eye love U, 사랑합니다~

- 영·유아·유치부

사순절 저금통을 만들어서 부활절에 가지고 옵니다. 저금통을 깨서 모은 현금은 도움이 필요한 곳들에 전달합니다. 영아부는 실로암 안과병원에 개안수술 비용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뿐사뿐 우리집

- 영·유아·유치부 주중 신앙교육

사순절 기간 동안 매주 영상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사뿐사뿐 필사집

“사순절 예수님뿐, 사순절 말씀뿐”

- 아동부

사뿐사뿐(사순절 예수님뿐, 사순절 말씀뿐) 성경 필사를 통해 사순절 동안 예수님뿐, 말씀뿐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해 사뿐사뿐 걸어갑니다.

고난주간 그림 묵상

- 중등부

고난주간 특별 영상을 통해 말씀을 묵상합니다. 명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기회로 삽니다.

구속사로 보는 고난주간 묵상 :

마침내 이르러 이루시다

- 고등부

성경 인물의 상황과 속마음을 1인칭 독백으로 구성한 ‘모놀로그 묵상집’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합니다.

미디어 가려먹기

- 중·고등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고난 주간 동안 미디어를 절제하고, 십자가 고난에 집중할 수 있는 신앙 콘텐츠를 선택하여 “미디어 지혜롭게 사용하기” 캠페인을 실천합니다.

성금요일 예배

- 중·고등부 연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성금요일 밤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특별 예식을 통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필(必)사순절

- 대학부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위해 40일 간 정해진 말씀을 필사하고 SNS를 통해 공유합니다. 필사기록을 종합하여 부활주일에 시상을 진행합니다.



3년 만의 해외의료선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했습니다



의료선교부는 지난 설날 연휴를 이용하여 1월 20~24일 필리핀 단기의료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020년 2월 미얀마로 단기 의료선교를 다녀온 후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다녀온 해외 의료선교였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필리핀 단기선교를 계획 했으나 당시 선발대 성격으로 가셨던 6명 중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고, 그중 1명은 입원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계획했던 일정을 취소할 수밖

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 연휴 단기의료선교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와 달리 필리핀은 코로나19에 관한 국가적 통계와 혼황 자료가 부족하여 의료선교부 자체에서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자체 준비도 철저히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교회에서도 3년 만에 최초로 나가는 해외선교인지라 많은 분이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주셨습니다. 자비량 선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선교부 내외에서 많은 분이 자원하셨습니다. 박용준 지도목사님과 의료선교부 최성준 부장 장로님을 비롯하여 39명이라는 기록적인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사역에 사용할 물품을 준비할 때,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에서의 매우 까다로운 세관통관에 대비하여 준비한 약을 공용 짐 여러 군데로 분산했습니다. 수술 도구, 치과 진료 기계, 초음파 기계 등 작은 병원이 움직이는 수준으로 준비하여 34개의 공용 짐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를 위해 모두가 개인 짐을 직접 비행기에 들고 타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팀원들이 기꺼이 협조해 주었습니다.

마닐라 공항 세관 프리패스

20일 저녁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니 밤 10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세관통관을 기다리는 우리와 함께 한국에서도 많은 중보 기도팀이 세관에서의 무사통과를 위해 기도해주신 응답으로 이전과는 달리 너무나 쉽게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이전의 필리핀 단기의료선교의 경우, 항상 쉽게 통관을 시켜주지 않아 2~3시간씩 지연되기도 했고

추가로 돈을 요구받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단 한 개의 짐도 검사 없이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21일 아침 박용준 목사님 인도로 경건회를 마친 후 우리 교회 협동선교사이신 김춘자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카비테란 지역의 월드미션세미너리(World Mission Seminary)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마닐라 남쪽으로 자동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지역이었습니다. 2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이 지역은 마닐라 시내를 개발할 때 빈민들을 이주시킨 곳으로, 대부분 의료혜택을 거의 못 받는 최저생활 이하의 지역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약품 정리 후 바로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내과/소아과, 이비인후과, 치과, 영상의학과(초음파검사), 진단검사의학과 및 외과 수술팀으로 나뉘어 바로 진료를 시작했고, 혈액검사팀, 약국팀도 바로 가동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주민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어 3일간 토요일 오전과 오후, 주일 오후, 월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주민이 크고 작은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균형 잡힌 식단 없이 단백질 섭취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고지방 위주로 식사





내과/소아과(1) 뿐 아니라 치과(2)
외과수술(3) 중보기도(4)로 이어진
필리핀 단기의료선교

주일에는 현지인 교회 센트럴월드
미션처치에서 예배도 드렸다.
(설교 - 박용준 목사,
통역 - 김춘자 선교사) (5)



하다 보니 비만해지고, 결과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주민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주민들 대부분은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병원에 가더라도 규칙적으로 가지 못하여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각종 피부질환과 감염증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도 많았습니다. 구강위생이 좋지 않다 보니 치아가 정상적인 주민들이 드물었으며, 각종 외과적 질환, 지방종을 비롯한 커다란 혹을 수년씩 달고 살면서 고생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사흘간 900여명 진료, 500여명 중보기도

3일 동안 1,140여 명의 주민을 진료했습니다. 내과/소아과 560명, 이비인후과 257명을 진료했고, 수술도 49건, 치과진료 133건, 초음파검사 141건을 진행했습니다. 이 중에서 투약받은 환자는 908명으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투약받은 환자는 기도실로 인도하여 목사님 주도로 중보기도했으며, 주민들의 동의하에 518건의 중보기도와 가정기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문화 사역으로 450벌의 티셔츠를 어린이들에게 나눠주었고, 1,200여 개의 풍선과 900여 봉지의 팝콘을 튀겨 나눠주었습니다. 어린이를 중심으로 389건의 사진을 찍고,



말씀따라 행진하라 (민수기 9:23) 행함과 진실함으로 (요한1서 3:18)

즉석에서 컬러 프린터로 사진을 만들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22일 주일 아침에는 현지인 교회인 센트럴월드미션 쳐치(Central World Mission Church)에서 주민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그들을 돋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온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선교·봉사 잘 조화된 의료선교

이번 선교팀의 연령층은 다양하게 이뤄졌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1942년생 80세였고, 2000년생 23세까지 있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의료진과 다양한 직종의 성도들이 문화사역에 참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의료선교를 갈 때마다 항상 우리의 의료선교가 의료봉사를 위함인지, 아니면 선교를 위함인지 고민하곤 합니다. 이번에는 이 두 가지 목적이 하나로

잘 조화되는 은혜로운 의료선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의료혜택을 베풀고 오는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선교에 참여한 우리가 얻어온다는 것을 의료선교 때마다 느낍니다. 안락한 한국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수십 년씩 현지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과 그분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잘 모르던 주민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교회가 세워진 토대에서 의료선교팀이 조금이나마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선교하고, 형제자매의 사랑을 나누는 의료선교부, 영락 교회의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박도준 안수집사
종로·성북교구
의료선교부
필리핀 의료선교단장



PHILIPPINES

의료선교 ②



의료선교봉사에서 팝콘 튀기는 일은 또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사흘동안 팝콘맨으로 활약했습니다(사진 오른쪽)

첫사랑으로의 선회, 우리가 살아갈 토대



청년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리를 잡아야 하고 월세, 전세 등 집 문제로 인한 고민, 결혼이나 육아로 인한 고민 등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항상 있습니다. 특히,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분주한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한 삶을 지향하기에 더욱 고민이 많습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동기는 바로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경 공부 테이블에서는 그 이야기가 무심하게 지나가곤 합니다. 하도 자주 들어서 익숙한 이야기로 취급받는 것인지. 마치 어떤 단계별 성경 공부의 하나의 챕터처럼 ‘성경 공

부 제1과 :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빠르게 훑고 지나 가곤 합니다. 왜냐하면 갈 길이 머니 서로 익숙하고 다 아는 이야기는 간단히 넘어가는 것이지요.

매일의 과업에 감사는 사라지고…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종일 사업에 몰두하다 귀가하면 가정을 돌보는 한편, 주말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첫사랑은 식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진 채, 그저 매일의 과업을 수행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새부터인가 십자가라는 주제를 만나면 시큰둥해지곤 했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사랑보다 그다음 주제에 더 관

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당면한 과제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는 어떤 봉사를 해야 할까, 그 봉사는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배우자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직장을 얻거나 옮길 수 있을까 등입니다. 이런 와중에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매우 오래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필리핀 의료선교봉사를 떠났습니다. 설연휴에 친척들을 못 찾아뵙고 선교를 떠난다는 것이 조금 죄송스러웠지만, 코로나 때문에 막혔던 선교의 몸짓이 기지개를 켜는 선교였으며, 저 역시 오랜만에 참여하는 해외선교인데다 아내랑 처음으로 함께 하는 해외선교였기에 기대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정신없이 팝콘 튀긴 사흘

의료선교봉사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팝콘맨’이었습니다. 3일 동안 팝콘을 정신없이 튀겼습니다. 920봉지 정도 튀겨서 필리핀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팝콘을 받으면서 좋아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팝콘 한 봉지 받고 다시 맨 뒤에 줄을 서서 다시 팝콘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귀여웠습니다. 자신이 팝콘을 받을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계신 할아버지에게 먼저 팝콘을 양보하는 아이들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간다면 ‘캐러멜 팝콘’에 도전하겠다는 야심 찬 마음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절절히 느껴져

이번 해외선교에서 특별히 받은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1월 22일,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의 일이었습니다. 앞에서 매우 강력한 목소리로 한 자매가 Amazing Love(You are my King)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I'm forgiven because You were forsaken

I'm accepted, You were condemned

I'm alive and well, Your Spirit is within me

Because You died and rose again

찬양을 부를 때 너무나 익숙하고 다 아는 이야기 같았던 ‘십자가의 사랑’이 왜 이렇게 절절히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토록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 죄인인 나 때문에 정죄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는지요. 예배 시간에 정말 오랜만에 평평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아! 내가 받은 사랑은 그저 예수님께서 ‘사랑한다, 윤범아’라고 몇 마디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철저히 버림받아 정죄당하고 끝내 죽으셔야 했던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것이 그 짧은 찬양 시간에 놀랍도록 깨달아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첫사랑이 다시금 기억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돌아오는 길에 ‘해외선교’를 다녀온 은혜는 한마디로 ‘첫사랑으로의 선회’로 정리되었습니다.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제 영혼 깊이 새기는 은혜를 받게 되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이윤범 성도
고양·파주교구
청년부 꿈꾸는 땅
청년회 의료선교팀장



의료 선교 ③



안내를 맡아 의료선교에 한 몫을 했습니다
(사진 1 2 원쪽 첫번째)

더운 날씨 속 강행군, 우리의 열악함도 사용하십니다



기쁨과 기대

필리핀 의료선교는 장신대선교회와 예수전도단 (YWAM)으로 활동하던 대학 시절 이후 몇십 년 만에 처음 주어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학부를 졸업하면서 선교사와 교회음악가의 길을 놓고 갈등했던 지난 시간을 뒤로 하고, 지금의 자리에서 있는 제게 필리핀 의료선교는 큰 기쁨과 기대의 시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간

온전히 3일을 진료해야 하는 빽빽한 일정 중 저는 짐꾼으로, 심부름꾼으로 지원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날 진료를

시작하기 전인데도 아픈 몸을 이끌고 더운 날씨 가운데 100미터가 넘는 줄을 서 있는 현지인들, 밤 비행 뒤 새벽 시간 숙소에 도착해 몇 시간 못 쉬고 나왔음에도, 즐겁게 진료를 준비하는 우리 의료 팀원들의 섬김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3일의 강행군 속에서 진료소를 꽉 채운 현지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몇 번이고 눈물을 훔쳐야만 했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몰려와 지나가기도 힘든 복도, 50여 년간 어깨에 큰 혹을 달고 살아 하루도 편하게 할 수 없었다던 아저씨, 20대의 꽃다운 나이임에도 눈 위에 큰 혹이 있어 아름다운 얼굴을 늘 숙이고 살았

던 자매, 빈민촌의 열악한 환경으로 발의 상처에 덧난 큰 물집으로 발목 가득 고름을 달고 절뚝거리며 놀던 아이… 진료실과 수술실을 오갈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으며 한없이 흐르는 눈물과 함께 부족한 우리를 통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행함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배를 통해 매 순간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지 이번 의료선교를 통해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와 강행군으로 힘들고 지쳤건만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따뜻한 미소로 마음 다해 팀원과 현지인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술실 특성상 창문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서, 몇 명씩 달라붙어 온종일 땀 흘리며 수술하는 모습, 박용준 목사님과 기도팀이 진료를 마친 현지인들을 한 명씩 붙잡고 현지어로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명절 연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주신 달란트를 통해 헌신하는 모습들은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매일의 사역 후 김경오 장로님 인도로 진행된 버스 안에서의 나눔 시간 또한 서로에게 큰 힘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중학교 이후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나의 룸메이트이자 우리 팀 막내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경기도 평촌에서 가족 구원을 위해 매일 새벽 교회로 달려와 새벽 제단을 쌓는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를 알기에 그를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가 귀국하는 날 버스 안에서 울먹이며 이번 선

교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눈물의 고백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주시는 은혜

마닐라로 향하는 4시간의 비행 중 3시간을 함께 이 야기 나눈 나의 ‘3시간 짹꿍’ 박홍준 장로님의 말씀처럼 가장 복되고 기쁘며 감사한 시간이 이 선교 현장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주하고 치열한 우리 삶의 환경에서 벗어나 선교 현장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때 모든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교감하는 시간. 찬양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보지 않아도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역의 시간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늘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제게 이번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꼭 다시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 삶의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욕심부렸습니다. 오는 가을 추석 연휴도 수요기도회와 안 겹치게 연휴가 길다고 환한 미소로 달력을 펼쳐 보이시던 조병준 장로님의 모습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함께한 의료선교팀원들 모두의 고백입니다. **만날**

노원일 집사
강남교구
할렐루야찬양대 지휘자

항상 함께하시는 일상의 은혜

평범하기만 했던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보이지 않던
제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있는 감사한 삶으로 느껴졌습니다.



김하현 전도사
노원교구
상담부
IT미디어부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평범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걸어온 삶의 발걸음 가운데 크고 작은 굴곡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삶의 큰 시련 없이 오늘날까지 살아왔고, 저 또한 이런 삶에 별다른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조금은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님들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들을 때마다 아무런 고난과 역경 없이, 또 그에 따른 신앙의 성장 없이 살아온 제 삶이 조금은 부끄러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감히 표현하기도 어려운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역경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신 분들의 삶을 마주할 때마다 아무런 고난이 없던 제 삶은 조금 초라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큰 병을 만났지만 이겨내고 믿음을 고백하는 목사님,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 장로님, 절체절명의 어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나 믿음을 더욱 곤고해진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난과 역경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신대원을 다니면서도 동기들이 치열한 삶을 살다 극적인 회심을 하여 부르심을 받고 온 이야기를 들으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큰 방향 전환 없이 대학에서부터 신학의 길을 가고 있던 저는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덜 임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제 삶에 함께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삶으로 체험하지 못하니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삶의 큰 사건과 굴곡이 없다 보니 제 삶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느껴진 것이지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삶에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저의 이런 기도 제목은 결혼생활을 통해 응답받았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결혼을 하고 나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을 해보니 정말 감당해야 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저는 결혼을 해서 나와 보니 정말 이제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여러 집안 일은 말할 것도 없고 관리비를 비롯한 각종 세금들도 알아서 내야 하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던 영양제 하나도 스스로 알아보고 사놓아야 했습니다. 아내와 이 모든 일을 분담하면서, 제 삶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 이 은혜를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문하지 않아도 영양제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퇴근해서 집에 가보면 이상하게 집이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아내의 은혜로 바뀐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부모님의 은혜, 요즘은 아내의 은혜로 제 삶이 아무 탈 없이 지탱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곤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제 삶을 감싸고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일상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굴곡 없이 평범하게 지나온 제 삶, 역

경과 고난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은 제 삶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조차 제 삶을 지키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이상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끝마칠 때까지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듯 항상 제 삶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깨닫고 나자 이제는 평범하기만 했던 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들키 보이지 않던 제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있는 감사한 삶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일들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좋은 부모님을 만나 신양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 영락교회라는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며 하나님께 훈련받을 수 있는 것 등 제 삶에 감사한 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겨나갈 믿음이 더욱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요즘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만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충성

방덕종 목사

샬롬! 2023년 교육전담 목사로 교육부 총괄 및 대학부, 교사교육부, 교회교육원을 섬기는 방덕종 목사입니다. 저의 가족은 아내 김정민,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아들 도윤, 이렇게 세 식구입니다. 저와 아내는 어릴 적 교회에서 선후배로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함께 기독교 육학을 공부하며 목회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씨름해온 동역자입니다. 아들 도윤이는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친구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아이입니다.

모태 신앙으로 자란 저는 중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통해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교회라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한 몸 이룬 공동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고, 속한 공동체가 교회로서 온전히 기능하도록 지체와 지체를 건강하게 연결해가는 것이 목회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임하는 첫 주일에 영락교회의 제직부서와 남녀선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그 속에서 기쁨과 열매가 풍성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영락교회에서, 건강하고 온전히 기능하는 교회의 모범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영락의 모든 교육 부서 안에 마르지 않는 기쁨과 좋



은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 사역에 함께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께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충성하여 섬기실 줄 믿습니다.

제 좌우명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입니다. 골로새서 3:23에서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에서 권면한 말씀인데, 제게 맡겨진 모든 일에서 이처럼 충성 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락교회의 ‘다음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사역’에 부족한 종을 불러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종의 가정을 마음 다해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한 해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말씀으로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와 기쁨과 평안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빛진 자의 마음으로 사역 감당

황재영 목사

샬롬! 2023년 인천교구, 전도부(금요직장인 예배), 선교부(문화), 4남/4여, 시온찬양대를 섬기는 황재영 목사입니다. 저의 가족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쁘고 사랑스러운 천사아내 김미, 저를 꼭 닮은 사랑스러운 딸 윤, 그리고 무엇을 해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막내딸 현, 이렇게 네식구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하나님의 기도처럼 어머니의 서원 기도를 통해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내 집처럼 여기며 자랐습니다. 성장 과정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어머니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사명이 되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저의 삶을 뒤 돌아 생각해 보면, 비록 죽었다 살아난 기적과 같은 간증은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음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요 간증입니다.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도구요 통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연의 자리가 온연의 자리 되게 하신 일, 영락교회의 전임전도사 사역, 영락기도원에서 훈련받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올해 영락교회 부목사로 새롭게 사역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겸손히 고백합니다. 저는 한경직 목



사님께서 작사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찬송가 444장)’ 찬양을 제일 좋아합니다. 특히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고백할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은혜와 사랑에 빛진 자의 마음으로 믿고 맡겨주실 모든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보아왔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스가랴 8:4~5) 저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품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며, 아낌없이 남김없이 한결같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한 사역에 쓰임 받길...

정준희 목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2023년 하나님으로부터 영락교회 국제예배부를 섬기도록 부름 받은 정준희 목사(pastor Joe Chung)입니다. 저의 가족은 아내 백민정,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혜연,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서연,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온 가족이 버지니아주 한 교회의 후원으로 모두 공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학업을 마친 아버지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빛을 갚고자 귀국하여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개척교회의 실상은 어릴 적 목회자가 되겠다는 저의 서원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면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10여 년 2세 사역과 한국의 10여 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한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목회자가 정결함과 순결함을 잊어버린 채 어떤 모습으로든 타협하게 된다면, 양을 진실하게 돌보거나 양육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연단 받은 저는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거룩해지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락교회 부임 후 지금까지 느낀 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해 두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2023년의 첫 달 교회의 수많은 성도가 영적 삶이 훈련되어 기도에 옮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역대하 7:15) 말씀처럼, 기도하는 영락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영락교회 국제예배부 성도들에게 영적 훈련과 양육을 통한 큰 꿈과 비전을 심어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특별히 국제예배부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을 국제적 마인드로 품기를 소망하며 도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시편 37: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입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할수록 제 마음의 소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면서 더욱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세대 부흥 새로운 꿈 꾸

이종실 목사

샬롬! 2023년부터 중등부를 섬기는 이종실 목사입니다. 저의 가족은 하나님이 짹지어 주신 사랑하는 아내 김초희, 10살 아들 시원, 7살 딸 채원,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고등 학교 시절 미술 전공으로 진로를 정해 미술대학에 진학하여, 20살의 성인으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대학 문화를 즐기기 시작한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하지 않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중생활을 하던 중, 여름에 뜻하지 않게 참여했던 한 선교 집회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저의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며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세대의 부흥과 예배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다음세대’가 위기를 맞이하며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꿈꾸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학교 사역을 통해 그리고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사역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영락교회 목회자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영락교회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 부흥을 위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한국 교



회와 영락교회의 미래 세대를 세우는 사역과 영락교회 중 등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교회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소유로 삼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영락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비전을 따라 걷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만날**

3040세대 변화 ‘도구’ 아닌 주체적 참여 원해



우리 교회는 지난 1월 30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국 교회 현황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당회원 영성수련회를 열었다. 지용근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가 <2022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VOL.4)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가 당면한 현실과 교회의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표 중 주요 내용을 우리 교회 성도와 공유하기 위해 요약 소개한다.

편집부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교회

코로나19 이후 교회를 둘러싼 주요 사회적 현상 가운데 첫 손 꼽을 점은 저출산/고령화이다. 2021년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이 생애 동안 낳는 야기 수)은 0.8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OECD 평균 출산율이 1.61명(2019년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출산율이 낮다는 선진국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 서울은 더 낮아서 0.63명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나아질까? 미혼 여성 중 결혼 의향이 있다(35%)는 사람보다 없다(44%)는 사람이 더 많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없으니 고령화는 당연한 추세다.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 한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의 현황은 어떠할까.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를 2년 이상 겪으면서 한국 교회도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경험했다. 지난해 4월 전국의 19세 이상 기독교인 대상의 한 조사에서 뚜렷하게 나

타난 현상이 ‘플로팅 크리스천’ 즉, 떠도는 기독교인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교회 출석자 100명 중 주일예배를 현장(교회)에서 드리는 경우가 57.4명, 온라인이나 가정예배로 드리는 경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합해서 42.6명이었다. 현장예배를 드리는 성도 중에서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다는 경우가 31.6명이나 되었고, 2개 이상의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도 18.9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을 ‘붕 떠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른 지용근 대표는 현장예배 참석자가 코로나 이전 대비 전국 평균 30%가 감소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감소 이유로 ◇ 온라인 신앙의 등장 ◇ 교회학교 학생의 현장예배 참석률 50% 미만 ◇ 2020년 이후 새신자 비율 코로나19 이전 대비 20%라는 연구결과를 전했다.

3040세대의 위기와 MZ세대

한국 교회의 다음세대를 이어갈 3040 세대는 매우 팍팍

〈표 1〉 초중고 학생의 인구변화-일반 학교 vs 교회학교¹

(단위: 만 명)

구 분	2000년	2010년	2020년	20년간 증감율	2040년 (추정)	증감율
일반학령인구 (초중고)	811	734	547	-32.6%	328	-40.0%
주일학교인구 (예장통합)	41.6	39.1	24.0	-42.3%	12.0	-50.0%

한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직장 스트레스(71%)와 가사/육아로 몸과 마음 지친다(53%)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이들이 주일예배를 현장예배로 드리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현장예배 참석률은 30, 40대가 가장 낮았으며, 이들은 온라인 예배로 이동하는 경우뿐 아니라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도 많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3040 세대 중 현장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경우가 43%에 이르렀고, 현장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 중 73%가 10년 후에는 교회를 벗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이들의 문제가 이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어린 자녀 세대에 바로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들 세대의 어린 자녀들이 교회학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 〈표 1〉에서 보듯, 지난 20년 간 일반 학령 인구 감소는 32.6%였으나 교회학교(예장통합교회) 학령 인구는 이보다 10% 포인트가 더 높은 비율로 감소하였다. 다른 조사²에 따르면, 교회를 벗어나는 나이는 초등학교 이전이

가장 많아, 젊은 부모들의 신앙생활과 교회학교 학생수 감소와 뚜렷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교회학교의 존재와 교육 방식에 대해 본질적인 고민과 변화가 요구된다.

2030세대는 교회에서 가장 쉽게 이탈하는 세대로 나타났다. 다른 세대와 달리 이들의 이탈 이유로 ‘교회의 이념적 발언’이 4위로 나타났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들이 현재 출석교회에 만족하는 이유 1위가 교인간 친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 2위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수행인 것과 관련해 지켜볼 부분이다. 한편 이들이 현재 출석 교회에 불만인 이유 1위는 교회지도자들의 권위적 태도, 2위는 시대 흐름을 좋아하지 못하는 고리타분함이었다. 이들은 특히 교회에서 청년들이 행사에 동원되거나 (82%) 혼신을 강요받는다(56%)면서 청년들도 교회의 의사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90%)고 답했다.

소그룹과 하이브리드 처치가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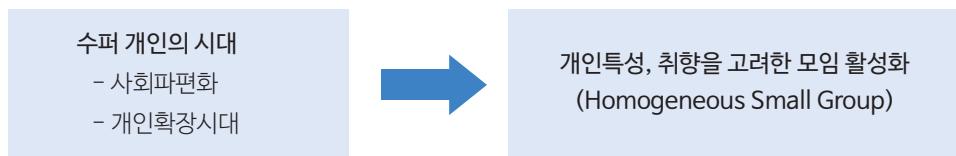
코로나19 3년차를 맞은 2022년 사회트렌드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전에 없는 ‘수퍼 개인의 시대에 들어섰음

1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2021.12.09., ‘장래인구추계:2010~2060’ 2011.12.07.
예장통합교단 교세통계 (http://new.pck.or.kr/bbs/board.php?bo_table=SM01_05&wr_id=1)

2030년 이후 교회학교 인구 예측은 예장통합교단 교세통계자료를 활용했으며, 과거 20년 간 일반학령인구와 교회학교인구 변화 비율을 반영하여 작성했으나,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됨. 원고 종 표, 그림은 자료 대표 발표문에서 인용.

2 학원복음화협의회, ‘2022 한국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전국 일반 대학생 1200명, 선교단체 소속 대학생 348명, 총 1,548명 조사, 2022.08.17~08.31)

〈그림 1〉 초중고 학생의 인구변화-일반 학교 vs 교회학교¹



을 보여준다. 인간관계 트렌드 변화로 나타난 것은 사람들이 거대한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자신과 공통점이 많은 소그룹에 속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엠브레인트렌드 모니터가 2021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 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 내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눈치보지 않고 선택하고 싶다(80%).
- 소수의 몇 명 친한 친구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삶이다(80%).
-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을 보면 웬지 모르게 반갑다(83%).
- 나와 비슷한 취향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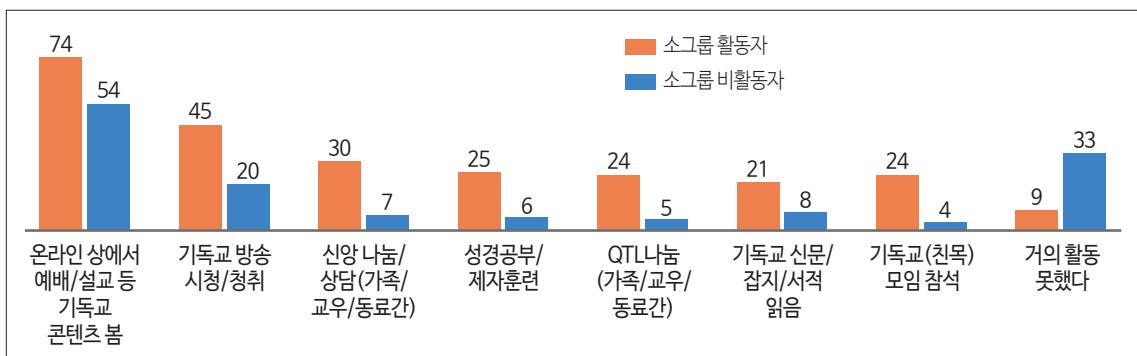
이를 교회와 신앙생활에 적용해보면, 〈그림2〉에서 볼 수 있듯 소그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에 비해 온라인상에서 예배/설교 등 기독교 콘텐츠를 보는 것을 비롯, 모든 신앙 활동 분야에서 뛰어난 것으로 차이를 드러냈다. 가장 편차가 큰 것은 QT나눔과 성경공부/제자훈련, 기독교 친목모임창설로 신앙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교제에 소그룹 활동이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두 그룹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전도 활동으로, 소그룹 활동을 하는 그룹은 전도 대상을 정하거나 전도 대상을 교회에 초청했다는 답이 그렇지 않은 그룹의 2배 안팎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처치는 한마디로 코로나 기간 중 경험한 온라인 채널과 전통적인 현장 교회(오프라인 채널)의 공존이다. 온·오프라인을 모두 보유한 혼종 교회, 즉 하이브리드 처치는 이들의 유기적 연결성을 구축하는 서비스 위에 복음을 옮겨놓는데 유용한 전망이라는 것이다.

〈그림 2〉 지난 1주일간 신앙 활동 내용 (소그룹 활동자 vs 비활동자, 중복응답)



출처 : '소그룹실태조사', 지구촌교회/소그룹목회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
(전국 교회출석자 중 소그룹활동자 500명, 비활동자 500명 2021.09.06~24.)

당회원 토론

저출산 고령화 이슈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니 변화에 적응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 역량, 달란트 등을 고려하여 주중에도 적절히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그룹을 개발하고, 시니어 리더를 양성하여 교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반면, 저출산 사회는 기독교가 기여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가톨릭 국가의 경우 대개 출산율이 높다는 통계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주간 탁아소 운영과 같은 현실적 필요를 교회가 헤아려서 지역사회를 도우며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3040 사역의 방향

청년부, 부부선교회, 청년선교회 등에서 3040 세대의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며,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들은 교회 일꾼보다 주체가 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영락교회 3040 사역의 기본방침은 3040세대를 교구와 소그룹에서 활성화하고 이들을 교구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정했다. 현재는 개인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3040 소그룹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교구별 소그룹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교구와 3040 소그룹의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젊은 세대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3040 사역을 활성화하려면 공간, 예산, 전담 사역자 등을 포함한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단순히 산술적으로 배분하는 접근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윗이 기도한 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략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것처럼. ‘적극적, 공격적, 과정적 전략(positive, offensive, and procedural strategy)’이 필요하다.

영락교회형 소그룹

소그룹은 단순한 동호회가 아니라, 말씀과 삶을 나누는 영적 그물망 역할을 해야 한다. 소그룹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헌신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는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다루어 주고, 이슈와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 소그룹 활성을 위해 제직부서, 교구와 구역, 남녀선교회 간의 분업과 협업이 필요하다.

영락교회형 하이브리드 처치

온라인 교회와 오프라인 교회는 양자택일적인 제로섬 관계가 아니며, 어느 하나를 늘리면 다른 하나를 줄여야 하는 시소관계도 아니다. 오히려 상호보완적이고 시너지를 일으키는 원원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면예배 참석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예배 송출을 하지 않거나(고등부), 온라인 예배 참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아동부) 현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달라진 세상은 달라진 교회를 원한다.” 온라인 목회를 예배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학교 온라인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온라인 교육은 비단 교회학교 뿐 아니라 성인 성도들을 대상으로도 그 범위를 확대하여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별성이 강한 상담과 멘토링 사역, 개별성과 공동체성을 모두 강조해야 하는 교회교육, 제자양육/훈련사역, 직능별 선교, 국내외 선교 사역의 경우에도 온/오프라인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성경은 물의 역사다

물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인간들의 오용으로 환경이 오염되어 이제 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인간은 물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 육체적 활동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활동하기가 어렵다. 인간의 일상생활은 물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영위할 수 있다. 중동에서는 오아시스의 존재가 유목민의 생활을 지배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변동하는 하천의 수위에 따라 농작물을 재배하기도 하고 고기잡이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물의 존재가 인간의 생활이나 문화를 규정했다.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고 물과 태양빛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다. 식수와 농작물 관개, 산업용수로 다양한 물이 사용되었다. 물이 존재함으로써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어서 환경 보존이나 환경 보호 등을 위해서도 물에 대한 가치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김재원 안수집사
노원교구
홍보출판부 차장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신 물

물은 공기와 함께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은 50일 정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지만 물은 5일, 공기는 5분 정도 마시지 않는다면 살 수 없다. 연령·성별 신체 조건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인간에게 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다면 태아는 인체 97%, 영아는 80% 나 되고 성인이 되면 남성은 60~70% 여성은 50~60%가 물로 채워져 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수분이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체내에 물이 순환하면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해 주며 혈액과 호르몬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체외로 방출하고 열을 발산시켜 체온을 조절하며 유지하는 중요한 일을 다양하게 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가 필요하다. 모든 만물은 물에 의해서 만들 어지고 유지될 수 있다.

히브리어에서 물은 마임인데, 주로 말씀을 의미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했는데 사도들이 마임의 뜻으로 기록한 것이다. 물은 비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는 생명과도 같다. 때문에 비를 하늘에서 내려 온 땅에 생명



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생명의 물(마임하임)이라 한다.

성경에는 신구약을 통해서 물에 대한 기록이 많다. 성경의 역사는 물의 역사이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니 이를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태초에 물이 있으니’로 시작하고 있다. 창세기 2장 10절에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4개의 강(비손, 기흔, 힉데겔, 유브라데)이 되었다고 쓰여 있다.

물은 축복과 성령의 역사

그밖에도 물의 순환, 하천의 근원, 우물의 역할 등 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스라엘 민족은 비가 오지 않는 데도 샘물이 나오는 것은 바다와 샘물을 연결해주는 지하 통로가 있다고 믿었다. 현재는 지하수의 근원이 빗물이라는 것이 동위원소 측정에 의해서 밝혀졌다. 성서에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수 있다. 이는 건조한 지역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연관이 반영되어 있다. 성경에서는 물을 축복과 성령의 역사로 비유하고 있다. 에스겔 34장 26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가뭄이 심

하고 식수가 없어서 비를 기다릴 때 내일은 비를 주시되 복된 장맛비로 축복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로 시작해 세례 통해 영생

요한복음 4장 13~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저녁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팔레스타인 아라비아 시막 지방에서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최대의 환대로 여겼던 문화의 기록도 된다. 물과 함께 향료도 발달했는데 몸의 불쾌한 체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다. 인간은 물의 역사를 살아왔고 세례 형식으로 온몸을 물에 적시는데 육신의 죄를 씻어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한다. 기독교에서 세례는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온몸을 흠뻑 적시는 세례식으로 이어졌다. 세례를 받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초기의 세례식은 샘이나 강에서 흘러나오는 흐르는 물에서 치렀으며, 후에 그 의식이 예배당 안으로 옮겨졌다. 세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물로 축복을 내리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일에 준비 단계인 것이다. 성경의 역사는 물의 역사이고 인간 삶의 역사도 바로 물의 역사다. 물의 중요성이 성경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다. 물로 상징된 변화가 우리 인간 삶의 변화를 만든다. 세례를 상징으로 인간은 영혼의 변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다. 인간의 삶은 물로 시작해서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서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만날**

새벽 기도를 이어간다 믿음의 대를 잇는다

2023년 1월 1일부터 본당에서 새벽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와! 영락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겠구나, 1칸씩 기도를 채우라는데, 그래, 영락교회 전체가 합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 이루시는 것을 함께 보겠구나, 많이 설렜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입니다. 내 욕심이나 아쉬움으로 기도를 시작할지라도 기도 중 더 긴급한 이웃을 기억나게 하시며 사회와 나라를 향하도록 지경이 넓어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도 혹시 새벽에 고단하다고 엄살 충만해진 내가 비몽사몽 중언부언할 것 같아 ‘쓰는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다섯 시 반, 쓰는 중보기도’

어릴 적 내 일기 한 토막입니다.

‘아버지는 언제 주무실까? 어젯밤 내가 잠들 때까지 책 보고 계셨는데, 새벽에 나와 보면 벌써 일어나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의 등. 세상에서 제일 든든합니다.’ 아버지의 단정한 큐티 노트들은 고귀한 유산입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경제 정책 입안을 위해 밤새 성실히 일하신 경제학자였습니다.



김영미 권사
고양·파주교구
북한선교부 하나님팀장

가정 예배 때마다 똑같이 하시던 아버지의 기도가 저절로 외워졌습니다.

- ①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와 찬양
- ②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잘 믿고 극심한 고생은 면하도록, 만날 기회를 주시도록
- ③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며 바르게 살도록
- ④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영락교회가 장자의 역할을 겸손히 감당하도록

시간이 흘렀습니다. 1948년 평안남도 순천을 홀로 떠나 벤아니전도교회를 찾아온 18세 소년은 93세 노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 기도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절로 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자녀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활기가 솟는 영락의 새벽기도 현장이 그립지만, 이제는 기도를 가르쳐주신 아버지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새벽예배를 잘 드리고자 날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새벽기도 잘 지키기! 열심히 기도 쓰기! 아무리 소원하고 결심해도 다섯 시 반의 시간 지킴을 벌써 많이 놓쳤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나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새벽기도 현장에 계신 교우들이 부러운 한편, 가끔 내가 한심합니다. 늦은 시각이라도 예배를 따라갑니다. 포기하지 않으려고 다짐합니다. 지각이라도 결석보다 낫습니다, 부끄러워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힘입어 서툴러도 착하고 너른 기도를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다행히 쓰는 기도는 솟는 욕망 샘으로 가는 길을 막아줍니다.

심청이 치마폭같이 기워서라도 365조각 마침내 한 폭의 부끄러운 천 조각이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얼룩지 고 눈물 자국 지져분한 기도의 조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여 들으시는 내 사랑, 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할 말조차 잃어버린 마음도 깊이 만지셨음을 기억합니다.

아쉬움 많은 이웃과 사회와 세상. 그리고 나와 자녀들에게도 일어날 선한 기적을 믿습니다. 쓰는 기도는 결국 믿음의 대를 잇고자 하는 작은 결심입니다.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날마다 새 마음으로 추스르자! 구멍이 나서 너덜너덜해진 깃발이라도 흔들며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깨끗하고 완벽한 주님 마음에 흡족한 교우의 고백을 듣고 본받고 싶습니다. **만날**

알사탕



백희나, 책읽는곰, 48쪽, 2017년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알사탕'을 소개합니다.
한국 최초로 아동문학상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伦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동동이라는 아이가 혼자서 구슬치기합니다. 친구들이 먼저 말 걸어 주기를 바라지만 친구들은 동동이에게도, 구슬치기에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어쩐지 어색해진 동동이는 새 구슬을 사러 간다는 핑계로 놀이터를 떠나 동네 문방구로 가서 구슬같이 생긴 알사탕을 한 봉지 삽니다. 색깔, 크기, 모양도 가지가지인 알사탕 중에 한 알을 골라서 입에 넣었더니, 원래는 들을 수 없던 여러 존재들의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한 알을 먹을 때마다 동동이는 소파가 전해주는 이야기, 키우던 강아지의 이야기, 잔소리만 하는 아빠의 속마음, 돌아가신 할머니의 마음 등을 듣게 됩니다. 사실 동동이는 제 마음을 표현하기에도 서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에도 서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알사탕을 통해 듣게 된 주변의 소리는 동동이에게 공감, 용기, 성장을 이루어 가게 해줍니다.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뿐 아니라 상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마스크 착용 현실에 익숙해진 요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가며 마주치는 이웃들과의 대화조차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동동이처럼 마음을 표현하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어려운 메마른 시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동이가 알사탕을 통해 듣게 된 소파, 강아지, 아빠, 할머니의 속마음은 다름 아닌 배려와 이해,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병훈 목사
3040세대 전담
청년부, 청년선교,
부부선교

쉽게 읽어 내려갈 한 권의 그림책을 통해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주변의 속마음을 생각하며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통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소하고 맛있지만 메마른 건빵을 다시 군침이 돌며 맛 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별사탕처럼, 알사탕이라는 그림책이 메마른 우리 삶의 뻑뻑함을 감사와 기쁨의 달콤함으로 바꿔주기를 기대하며 추천합니다.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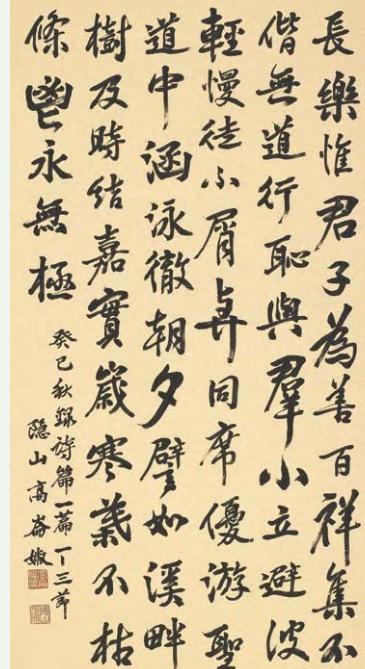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 1~3)

우리는 누구나 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사람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되고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은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누리는 의인의 삶은 그 추수기에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행복은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끊임없는 경건의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영원하고 진정한 행복인 까닭입니다.

올해 영락교회의 표어가 “말씀따라 행진하라”입니다. 저는 시편1편의 첫 세소절을 한자로 쓰며 복된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날**



고윤숙 은퇴권사
강서·구로·양천교구

2023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 축복 특별금요기도회’ 열려



지난 2월 10일(금)부터 ‘2023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 축복 특별금요기도회’가 3주간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열렸다. 해마다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진행되었던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해부터 금요일 저녁 찬양기도회로 드려지고 있다. 어린 자녀들과 이른 새벽에 교회로 향하는 어려움을 배려한 것으로, 더욱더 많은 영락의 가정이 자녀의 손을 잡고 본당을 찾아 기도회에 참여했다.

2월 10일 첫째 날 기도회의 집중참여부서는 베드로부, 대학부, 청년부, 호산나 찬양대이며, 김운성 위임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자녀에게 동지로’라는 주제로 성년이 된 자녀에게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부모님과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지’가 되길 바란다는 권면의 메시지를 전했다. 2월 17일 두 번째 기도회의 강사는 신형섭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로 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자녀들과 함께 참석한 부모들에게 가정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어린자녀를 올바른 신앙인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가정예배를 회복하여 세상 앞에 강한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워나가자고 강조했다. 2월 24일 세 번째 기도회는 강윤호 목사(반포교회 위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입시와 진로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부, 중등부, 고등부, 자유인 성장기 자녀들을 주인공으로 초대했다.

매 시간 찬양과 말씀 후, 부목사와 부모는 미리 준비한 중보기도카드를 올려놓고 사랑스런 자녀를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어 눈물로 암수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나눴다. 3주간의 특별금요기도회를 통해 영락의 많은 가정은 자녀와 함께 한목소리로 힘껏 찬양하며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뜻겁게 기도하였다.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워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행진’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영적 부흥의 시간을 체험하면서.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상반기 전교인 성경통독 사경회

2023년 상반기 전교인 성경통독 사경회가 2월 20일(월)부터 25일(금)까지 5일간 김충섭 목사(성동·광진교구, 평생대학, 친교부) 인도로 진행되었다. 3교구(성동·광진교구) 주관의 이번 사경회에는 120명 정원의 120% 가 넘는 성도가 참여하여 말씀을 뜨겁게 사모했다. 김충섭 목사는 구약 성경 개요와 함께 모세오경의 중요성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의 각 구약성경목록의 39권 요약과 신약 27권의 요약 강의안을 제공하고 해설을 통하여 성경 통독을 진행했다. 통독은 또 성서 지리와 연대 도표 및 성경 속 이야기의 인포그래픽, 사진을 통한 설명, 성지 순례 영상 등을 통한 시청각 자료와 생생한 설명으로 성경의 이해도를 높여 살아있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었다.



통독에 참가한 성도들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 진행된 릴레이 통독과정에 지치지 않도록 세심한 봉사로 섬긴 3교구 여전도회 임원들과 각 교구의 참여 성도들의 격려, 특별히 각 교구 목사님들의 방문과 응원에 힘을 얻고, 성경말씀을 완독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대로 행진하기를 다짐했다.

취재 최윤미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2023년 제직부흥회 “교회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주일) 본당 찬양예배는 박지운 목사의 인도로 제직부흥회를 위한 예배로 드려졌다. 정명철 목사(도림교회)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고린도전서 4:1~2)’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기둥으로서 제직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입술로는 복된 말만 해야 한다. 불평 원망 저주하던 입술

이 감사, 찬송, 기도, 축복, 전도, 아멘의 입술로 변해 서로에게 행복한 말을 할 때 자신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둘째, 영적 욕심을 크게 가져라. 영적 욕심은 모든 축복의 출발이다. 셋째, 제직들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하여 미래를 위한 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제직들의 기도 훈련이 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며 교회의 수준은 기도 능력의 수준이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이 날 본당 1, 2층을 가득 메운 제직들과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아멘으로 풍성한 자리였다.

취재 이재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2023년 영락 기독 교사 대회 개최

- 학원선교 사명을 깨닫고 결단하며



영락 기독 교사 대회가 선교부(부장 김재완 장로) 학원 선교팀 주관으로 2월 23일(목)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 서 열렸다. 코로나로 중단된 지 4년 만이다. '말씀으로 행 진하는 기독 교사'를 주제로 열린 대회는 영락학원(영락 중학교, 영락고등학교,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대광학원(대광초등학교, 대광중학교, 대광고등학교), 보성학원(보성여자중학교, 보성여자고등학교)의 8개 학교 이사장, 교목, 교장, 교사 350여명이 참석했다.

담당하는 고은식 목사의 강의로 다음세대 교육에 있어서 꼭 필요한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강2는 양근복 강사가 공동체 훈련으로 레크리에이션과 교직원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기독 교사로서의 열정과 덕목을 훈련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50주년기념관에 마련된 개별 장소에서 각 학교의 교목 주관으로 복음의 인재를 길러내는 기독교 사학으로 세워나갈 사명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지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설경문 칩사

조두형 목사(선교부 전담)가 인도한 1부 예배는 우수호 목사(대광고 교목)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김운성 위임 목사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사사기 6:1~10)'을 주제로 "교사는 학교에서 학원 선교사가 되고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는 것보다 깨달음을 주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며, 그 사람이 학생들에게 이어가게 하는 스승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2부는 김상학 집사(학원선교팀장)의 사회로 학교별 소개를 진행하였고 제1식당에서 준비된 만찬을 나누었다. 오후 특강1은 청소년 사역을



신임권사 36명 임명식…“사랑의 어머니로 헌신”



2023년 권사회 헌신예배가 2월 26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드려졌다. 본당 중앙에는 한복차림의 권사회 증경 회장, 임원, 실행위원, 36명의 신임권사가 자리했다. 송 경심 권사(권사회 회장) 인도와 김혜옥 권사(권사회 부회장) 기도, 성경봉독(누가복음 10:38~42), 갈릴리찬양대 찬양에 이어 박지운 목사는 '순종과 헌신'이라는 제

하로 “마르다와 같은 헌신이 깃든 순종하는 권사가 되자”고 권면했다. 이어 김운성 위임목사는 신임권사 36명의 임직을 선포했다. 권사회 사역 영상 이후, 송경심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자세로 값없이 받은 사랑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신임권사 대표 류난희 권사는 “부족하지만 말씀 따라 행진하라는 표어를 가슴에 새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권사가 되겠다”고 답사했다. 권사회 찬양대의 특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신임권사들은 사랑의 어머니로서 순종 헌신하는 권사가 될 것을 다짐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이성환 안수집사

제 17기 조이스쿨 오프라인/온라인 모집

일시 4월 1일, 8일, 22일, 29일(토), 1-3시
장소 50주년 기념관 2층, 유치부실
대상 예비 엄마, 아빠 및 임산부 누구나
접수 3월 5일(주) - 3월 19일(주), QR코드접수
등록 50,000원(교재 및 활동자료, 선물 포함)
문의 조이스쿨 02)2280-0338, 010-5409-0719

강의 안내

1주차 마음의 기쁨 노은혜강사(필라테스)
2주차 가족의 기쁨 김숙경소장(가족치료연구소)
3주차 신체의 기쁨 최현일원장(산부인과)
4주차 영적인 기쁨 흥지연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뉴코리아국제학교·자유인청년 연합 동계수련회 개최

자유인들의 신앙과 정서적 안정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는 뉴코리아국제학교(교장 김국진 안수집사)는 지난 2월 17(금)~18일(토) 강원도 횡성의 웰리힐리파크에서 동계수련회를 가졌다. 수련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요한복음 8:32)'라는 주제로 자유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문화 체험, 신앙인들과 관계 형성으로 접촉하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목표로 열렸다. 교사와 교역자, 뉴코리아국제학교 학생 및 자유인예배부 청년, 결연하고 있는 한꿈학교와 여명학교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스키 타기, 레크리에이션, 성경개관 등의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뉴코리아국제학교는 자유인들이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



견하여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돋고, 대학 입시를 위한 영어와 논술, 작문을 익히도록 가르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현재 자유인 신입생을 모집 중이며 3월 7일 개강을 앞두고 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영락 포토, '드론 강좌' 열어



지난 2월 20일(월) 흥보출판부의 영락포토(회장 유승현) 주관으로 드론 강좌 "드론에 관한 이론 및 실제 사용법"이 5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완모 집사(DSLR 사진특강 111강 저자)는 제4차 산업의 범주에서 드론이 차지하고 있는 미래 지향적인 방

향과 청장년들의 취업과 진로, 그리고 장년층에게는 취미가 될 수 있는 경험담을 토대로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완모 집사는 항공운항법 및 비행 원리에 대한 기본 지식과 유의할 점, 초보자로서 드론 구입 요령과 자격증 관련 사항을 두 시간에 걸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열강했다. 30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입대 시 드론병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제대 후 취업 시 혜택 등 젊은 청년들을 위한 설명도 소개됐다. 올해 새로이 흥보출판부로 소속된 영락포토는 사진을 통해 선교하자는 취지로 매주 화요일 4시부터 소강당에서 모임을 갖고 있으며 현재 약 50여 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취재 인미기자

영락고·영락의료과학고 식당/체육관(경천관) 준공 예배 드려



학교법인 영락학원(이사장 김운성 목사)은 2월 21일(화) 오전 11시 영락고등학교/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에서 이사장, 은퇴장로, 시무장로, 건축관계자, 교직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천관’ 준공감사예배를 드렸다. 경천관은 지상 5층 2,605㎡ 규모로 2021년 1월 착공하여 2년여 만에 현대식 건물로 아름답게 세워졌다. 1부 감사예배는 김준희 목사(영락고 교목)의 인도로 이영철 전 부이사장의 기도, 김운성 이사장의 “예수 그리스도

의 터 위에(고린도전서 3:3~9)” 말씀과 축도로 진행했다. 2부에서는 김성식 교장의 사회로 이영철 건축위원장의 건축 경과보고 후, 김 이사장이 설계 시공 감독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수고한 손길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순미 장로와 유기홍 관악구 국회의원의 축사, 내빈소개,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3부는 테이프커팅식과 오찬으로 참석자들과 경천관 준공의 기쁨을 나누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보성여중·고, 서울교육청 2023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최우수 학교’

보성여자중학교, 보성여자고등학교(학교법인 보성학원 이사장 정천우 장로)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23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 중에서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었다. 이는 관내 총 496개 초·중등학교(학교법인 123개, 학교 373교)에 대하여 ‘사학기관 운영평가 결과’ 및 ‘평가 기준 지표’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우수사학 선발을 통해 선택과 집중 감사 실시로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학기관의 자발적인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자율과 자치행정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면 3년간 각종 감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컨설팅으로 대체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최우수학교에는 총 3개 학교가 선정되었다. 이는 보성학원 이사회와 모든 교직원들의 청지기적 사명감과 신앙을 바탕으로 한 노력의 결과이고 앞으로도 더욱 기대되는 학교의 발전하는 위상과 부합되어 높이 평가되는 선정 결과라 할 수 있다. 보성학원은 ‘신앙, 학력, 교육환경의 강화’를 학원의 목표로 삼고 있다.

제공 보성학원

2023년 부서지도 전도사

상담부



이영미



최진양

북한선교부



정하민



정성훈

국제예배



최성은



변성국

교육부 부서지도전도사

사랑부



전찬욱



이창근

영아부



최하영

유아부



권희주



안태성

유치부



문주희



윤혜은

**유
년
부**



홍준표



이빛나

**초
등
부**



배정일



김혜민

**소
년
부**



박요환

**C
e
b
C**



김지용B

**중
등
부**



강하림



정근우

**고
등
부**



심현석



김태용

**대
학
부**



김철환



강우주

**청
년
부**



홍수미



신민재

**교
회
사
교
육
원
부**



양동욱

“_____ 은 신입”

『만남』 속 재미있는 글 함께 읽어요

시즌1. 「수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경 이야기」

월간 『만남』에 실린 글을 함께 읽고 나누는 소그룹을 시작합니다. 첫회는 「수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림 속에 숨어있는 수학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나눕니다

1. 강좌명 : 「수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경 이야기」
2. 일시 : 3월 26일 ~ 8월 27일(매월 넷째 주일, 총 6회) 13:00~14:00
3. 장소 : 50주년기념관 503호
4. 강사 : 계영희 집사(홍보출판부 교열위원)
 - 고신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전 한국수학교육학회 이사
 - 저서 『명화와 함께 떠나는 수학사 여행(교육과학기술부 우수도서)』 외 다수
5. 문의 : 홍보출판부 02)2280-0197 youngnak-hb@daum.net

2023년 3월호 통권 589호

발 행 2023. 3. 1.

발 행 인 김운성

편집 인 김태영

편집위원 권오란 박선이 정용성 김경옥

김성문 김성수 류정현 박진현

안동현 이재향 이해순 인 미

정재원 최윤미

교 열 계영희 이광미 유승효

발 행 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종구 수표로 33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월간『만남』웹진



월간『만남』
안드로이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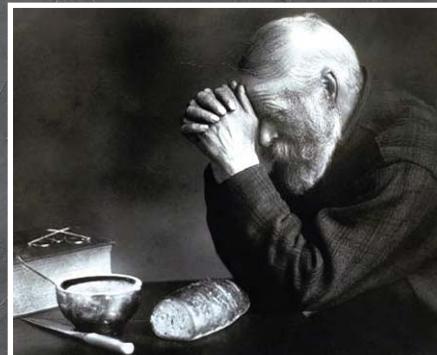
월간『만남』
아이폰용

www.youngnakmn.net



그럼에도 아직 감사할 게 남아있다

그레이스(Grace)
에릭 엔스트롬, 1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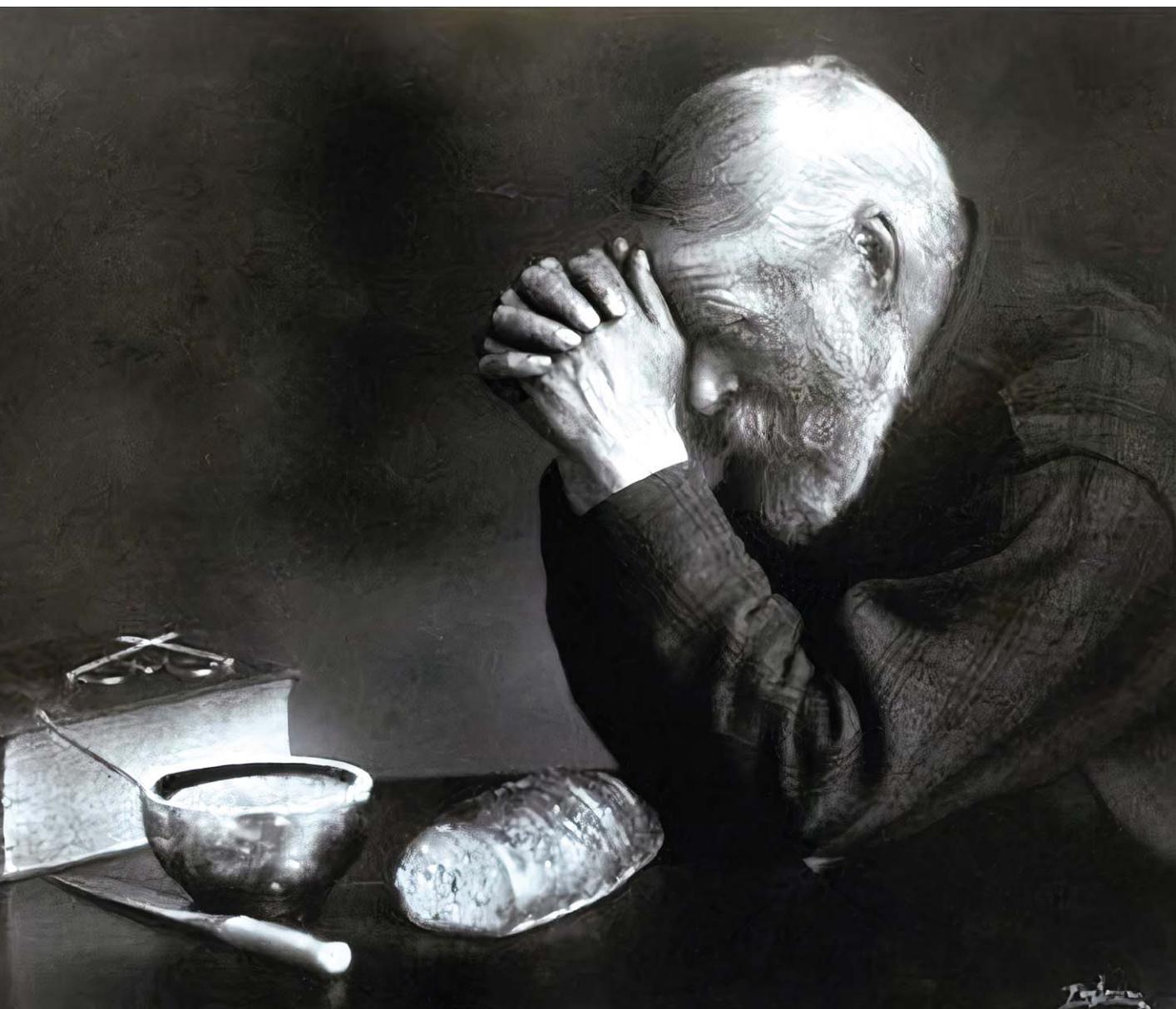
“저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비록 전쟁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 에릭 엔스트롬

이번 달 영락화랑은 미국의 사진가 에릭 엔스트롬(Eric Enstrom·1875~1968)의 ‘그레이스(Grace·은혜)’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공식 사진으로 채택될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큰 은혜와 울림을 주는 이 작품은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조지 물러(George Muller)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모습이 그만큼 은혜로웠다는 것이겠지요. 이 작품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1918년 어느 날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Bovey) 탄광촌에 있는 엔스트롬의 사진관에 찰스 월든(Charles Wilden)이라는 노인이 신발 흙털이개를 판매하러 들어옵니다. 그 우연한 만남이 이 유명한 사진 작품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제1차 세계대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아직 감사할 것이 남아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엔스트롬은 작은 탁자 위에 가죽커버의 책, 안경, 죽 한 그릇, 빵 한 덩어리 그리고 나이프를 세팅하고 찰스 월든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취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는 엔스트롬의 가이드대로 평소와 다름없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엔스트롬은 그의 선한 얼굴과 진심어린 기도의 순간을 포착하여 오롯이 담아냈습니다. 감사는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그레이스(은혜)

Grace



에릭 엔스트롬(Eric Enstrom), 1918